

시

윤영환

12월

새해의 소망은 아직도 이루지 못한 채
지는 노을을 보며 서성거리고 있는데
벽 위의 달력은 이별의 눈짓을 보내고 있다.

아, 차가운 바람은
자꾸만 어디론가 가지고 떠미는데
지친 몸은 바뀌되어 움직이지 않고
빛바랜 기억들만이 폭설로 쏟아지며
주름진 눈을 더욱 짓무르게 하는구나

그리움은 가슴에서 낙엽처럼 서걱거리고
장밋빛 꿈은 서서히 꺼져가는 불꽃으로
연기만 하얗게 피어오르고 있다.

약력

- ▲'월간문학' 동시, '창조문학' 시 당선
▲전남시인협회 회장, 광주 전남아동문
학인회 회장 역임
▲한국문인협회 국제문화교류위원회
위원
▲시집: '사랑하는 그대에게', '별을 잃어버린 그대에게'



평설

윤영환님의 시 '12월'에서의 시적 화자는 달력이 이별의 눈짓을
보내고 있는 어느 날,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서성이고 있다....

시조

서연정

메타버스

콘센트와 플러그 밧줄들이 뜨겁다
손에 담속 잡힐 듯 향기 가득 풍길 듯
눈바람 아무리 쳐도 젖지 않는 메타버스

현재를 밀쳐내고 무한히 재생한다
밤중에도 실시간 증폭된 가상현실
전송은 멈추지 않아 영상 속의 오로라

늪은 고아여 그대 마음 어디에 접속하나
돌아갈 수 없기에 겁에 질려 우는 새여
모닥불 사위는 새벽 불티처럼 별이 진다

약력

- ▲'중앙일보' 지상시조백일장연말장원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조 당선등단
▲작품집: '먼 길', '문과 벽의 시간들',
'무엇이 들어 있을까', '동행', '푸른 뒷모
습', '광주에서 꿈꾸기', '인생' 발간



평설

서연정님의 시조 '메타버스'에서의 시적 화자는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 속으로 들어간다. 메타버스는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
는 '메타(meta)와 세계·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 현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 활동까
지 이뤄지는 온라인 공간을 뜻한다....

수필

父母가 반 孝子

미생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세계의 온 인류
가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럴 때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저 하늘을 맘껏 나는 참새 한 마
리보다 못하고,...

훈련하는 어미 닭에서 부모의 참모습을 보았다
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내에게 물었더니 우리도
자식들에게 어미 닭과 같은 역할을 해보잔다.
급히 양동시장에 들러서 미나리 흥어 무침, 열
무김치, 파김치, 시금치 무침, 오리탕, 계장, 반
찬거리를 올망졸망 사 들고 와서 아내는 부지
런히 요리 솜씨를 뽐냈다....

품을 사서 보내면 친구들에게 효자, 효녀라고
자랑하고 싶듯이 어머니도 내가 사간 먹을거
리나 머느리가 사 보낸 옷들을 입으시며 우리
머느리가 만든 먹을거리는 내 입맛에 최상이
며, 머느리가 사준 옷은 너무도 잘 어울린다
며 동네 친구들에게 자랑하셨다. 어머니는 늘
이 불효자 내외를 효자, 효부로 만드셨던 것
같다.

농사를 지어 쌀 방아를 짚어 와, 손익계산을
해보면 도저히 이해타산이 맞지 않았는데도 어
머니는 매년 그 일을 하시면서 무농약, 무공해
식량을 사랑하는 손자, 손녀와 아들 내외를 먹
이겠다고 우기셨던 것이다. 배추를 길러서 김
장거리를 장만해 주시면 부대비용이 훨씬 더
들어갔다. 기르며 고생하시는 노고에 나는 휴
일까지도 반납하고 시골에 내려가 일손을 거들
어야 할 때는 싫은 마음에 투덜거리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사랑을 가볍게 생
각했던 불효 막급했던 지난날들이 정말 후회스
럽고 부끄럽다.

'주역'에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답
고, 형은 형답고, 동생은 동생답고, 남편은 남편
답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집안의 도가 바르게
되리니, 집안을 바르게 함에 천하가 안정되리
라.(父父子子兄兄弟弟夫婦夫婦而家道正 正家
而天下定矣)' 하였다.

시

김재길

데미샘 소회(素懷)

선각산 국사봉 자락 섬진 발원 웅담샘
흑룡이 용트림하나 아무스름 짙은 늦게
동쪽상잔 파르티잔 피 내음 활거지

구곡양장 물 골짜기 세류가 모여 모여
3개도 10개 군 굽이굽이 흘러 흘러
경천동지 창해상전(滄海桑田) 광양만에 닿는구나
섬진담 옥정호 우가피 봉어섬으로
태평성대 맞으며 관광 낙원 되었네

기아선상 60년대 면탈(面脫) 몸부림으로
피담 흘린 원시인력 퍼즐 시멘 벽
다람쥐도 넘보지 못할 거대 수직 벽인데
오로지 용화된 물만이 넘나드네

둔탁한 마찰음 겨울 붓어 흰 배 누이듯
탁진 세상 아등바등 피떡되어 놓지 말고
허허로이 청류되어 오순도순 살아보세

* 데미샘 : 섬진강 발원지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국사봉 계곡에 있는 웅담샘
* 늦게 : 안개비보다는 조금 굵고 이슬비보다는 조금 가는 비

약력

- ▲현대문예작가회 회장 역임
▲광주문인협회 부회장
▲(사)한국지역문학인협회 사무처장 역임
▲대한민국 향토문화공로상 수상



평설

김재길님의 시 '데미샘 소회(素懷)'에서의 시적 화자는 섬진강의 발원지인 데미샘에 대한 생각을 풀어놓고
있다. 데미샘의 물살 속으로 들어가 보면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들여 있다. 어느 해 동쪽상잔의 아픔이
스며들어 울음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던 서러움이 있다. 그해 충성이 울리고 물살은 벽에 부딪혀 깨졌고, 아득
한 소리를 내며 바다로 철썹철썹 떨어졌을 것이다. 시적 화자는 그 상황을 '동쪽상잔 파르티잔 피 내음 활
거지'라고 말하고 있다.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데미샘은 골짜기 세류가 모여 3개도 10개 군으로 굽이굽이 흐
르는 섬진강이 된다. 그 섬진강은 옥정호뿐만 아니라 봉어섬까지 관광 낙원으로 만들어 놓았다. 한때는 아픔
이 깊어 퍼렇게 멍든 물살로 흘렀던 데미샘의 물결이 이제는 오고가는 발길을 환영하고 있다. 수면에 비친 새
소리의 후렴구를 흥얼흥얼 따라 하며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시적 화자는 그 모습을 '섬진담 옥정호 우
가 피 봉어섬으로 / 태평성대 맞으며 관광 낙원 되었네'라고 말하고 있다. 1연의 '동쪽상잔 파르티잔 피 내음'과
대조를 이루며 평화로운 데미샘의 물결을 표현하고 있다. 시적 화자는 마지막 연에서 탁한 세상 아등바등 살
지 말고 데미샘의 물살처럼 맑게 오순도순 살아 보자고 권면한다. 작은 물줄기가 개울을 지나 넉넉한 강줄기
로 변신하듯 그렇게 살아 보자 한다. 섬진강을 만든 데미샘, 그 물의 고운 심성을 만난 듯하다.

약력

- ▲전서광초 교장, 가톨릭신문사 명예기자
▲수필문학 등단, 광주문인협회 이사
▲수필문학, 한국수필가, 장검다리수필 회원
▲제10회 빛고을 백일장 대상, 부정맥공모전 장려상



평설

신중재님의 수필 '父母가 반 孝子'에서의 서술자는 새끼방아리를 키우는 어미닭에서 부모의 참모습을 발
견한다. 그래서 시중에 가서, 이것 저것 반찬거리를 사와, 요리를 해서, 서울에 사는 딸과 가까이 사는 아들들
에게 나눠준다. 아들들은 과일로 보답하고, 딸은 고마운 마음을 보내온다. 서술자는 자연스레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떠올린다. 불효자 내외를 효자와 효부로 만들어 주었던 어머니, 무농약과 무공해 먹거리로 사랑을 배
풀었던 어머니, 새삼스럽다. 어머니의 사랑을 가볍게 여겼던 그 시절을 후회하면서,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집안을 바르게 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평생 흠을 만졌던 어머니, 자식을 키워내고 짙은
내일을 키워낸 어머니가 반 효자였던 것이다. 허리가 구부정해도 호미를 내려놓지 못한 어머니의 내리사랑이
반 효자였던 것이다. 효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은 어머니의 고단한 하룻길에서 시작됐던 것이다. 이 수필은 우
리가 알고 있는 효도에 대한 정의를 부모의 내리사랑에서 시작한다고, 또 부모의 버거운 하룻길에 자식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부모가 반 효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자식을 키우기 위해 정작 자신의 무릎뼈에 바
람이 들고 겨울이 들어서는지도 몰랐을 텐데, 다 큰 자식을 위해서도 또다시 그 무릎뼈로 흠을 만졌을 어머니
와 아버지의 사랑 앞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평설=박덕은 문학평론가



- ▲문학박사, 전남대학교수역임
▲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

신중재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시내 지역: 중앙지국 222-8171, 산수지국 224-4188, 학운지국 673-6836, 화정지국 372-9140, 금호지국 376-7153, 동양지국 603-0311, 노대지국 674-3581, 상무지국 453-2554, 광천지국 374-2120, 진월지국 676-2726, 봉선지국 673-6836, 백운지국 673-0123, 농성지국 362-4102, 유동지국 222-8171, 운암지국 529-3548, 용봉지국 261-1503, 신기지국 954-1420, 양산지국 574-3745, 함남지국 951-9954, 운남지국 952-1687, 오치지국 261-9461, 문흥지국 261-9462, 일곡지국 573-3200, 천단지국 971-7374, 치평지국 371-9584, 수원지국 955-0451, 광산지국 944-0993, 목포지사 061270-6889, 동곡지사 061278-0740, 남목지사 061245-3797, 신안지사 061980-6300, 순천지사 061746-1600, 여수지사 061651-6433, 나주시사 061335-0005, 광양지사 061793-6800, 남목지사 061782-4696, 담양지사 061393-5566, 곡성지사 061362-5746, 고흥지사 061832-6290, 보성지사 061852-6644, 화순지사 061873-7795, 장흥지사 061863-6800, 강진지사 061432-8999, 해남지사 061535-5849, 영암지사 061473-7151, 무안지사 061453-3645, 함평지사 061322-0882, 영광지사 061353-5133, 장성지사 061394-3636, 완도지사 061555-0134,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